

SK E&S, 내년부터 年 3만톤 액화수소 생산·유통 본격화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확장 위해 정부·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생산 착수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제2기 수소경제위 민간위원 위촉

KE&S가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손잡고 내년부터 연 최대 3만톤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유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SK E&S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효성, 하이창원, 현대자동차와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 민간위원이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사전 행사로 열렸다.

협약 당사자들은 2023년부터 국내에서 액화수소가 원활하게 생산·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을 전달받고 있다. /SK E&S

성하고, 수소 버스를 포함한 수소 상용 차 보급 확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먼저 SK E&S를 비롯해 효성, 하이창원 등 액화수소 공급사들은 2023년부터 경쟁력 있는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유통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액화수소의 생산·유통·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활용처 보급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액화수소의 주요 활용처인 수소 상용차가 차질 없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지·보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SK E&S는 인천 지역에 연간 최대 3만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를 건설 중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생산한 액화수소는 전국 거점 지역의 충전소를 통해 공급된다. SK E&S는 美 플리그파워사와 공동 설립한 SK 플리그하이버스를 통해 버스 차고지 등 수요처 인근에 액화수소 충전소 약 40여개소를 구축 중이다.

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수소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1/800, 1회 운송량은 약 10배 수준으로 대용량 저장·운송에 유리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충전 속도가 빨라 같은 시간에 기체수소 대비 약 4배 이상의 차량에 충전이 가능하며, 고압 압축이 필요한 기체수소와 달리 대기압 수준에서 저장할 수 있어 폭발과 화재 위험이 낮아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 E&S 측은 "지금까지 국내 수소 생태계는 기체수소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2023년부터는 수소사업에 참

여를 선언한 기업들의 액화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수소사업이 더욱 활기를 떨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는 250개소 이상의 액화수소 충전소가 운영되는 등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

한편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 수소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기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추 사장은 "액화수소의 본격 생산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액화수소 공급 기업, 차량 제조기업이 함께 수소의 저장·유통 방식의 진화를 이뤄내는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이번 MOU의 의미가 있다"며 "SK E&S는 경쟁력 있는 액화수소를 차질 없이 생산·공급하여 2023년을 국내 액화수소 확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콘텐츠에 올인한 LG U+, 전문조직 만들고 인재 대거 영입

U+3.0 일환 플랫폼기업 전환 속도
CCO 조직 내 제작전담센터 신설
전문인재 영입, 파트너사 투자 확대

LG유플러스가 조직 개편을 단행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콘텐츠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했으며 콘텐츠 IP 확보를 위해 공동 펀드 조성 및 파트너사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

LG유플러스가 미디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전문 인재 영입 및 파트너사 투자를 지속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U+3.0 전략의 일환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내년부터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달 CCO(최고콘텐츠전문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CCO 조직 내 콘텐츠 제작 전문 조직인 'STUDIO X+U'를 두



왼쪽부터 이덕재 CCO, 신정수 콘텐츠제작센터장, 이상진 콘텐츠IP사업담당이 새로운 조직인 STUDIO X+U를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고, 산하에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는 '콘텐츠제작센터'를 신설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STUDIO X+U는 콘텐츠 IP 발굴·개발·투자 등을 담당하는 '콘텐츠IP사업 담당'과 콘텐츠 제작을 맡는 '콘텐츠제작센터' 등 2개의 조직으로 개편됐다.

콘텐츠IP사업담당은 CJ ENM, 하이브 등을 거쳐 입사한 이상진 상무가, 콘

텐츠제작센터는 지난 10월 말 LG유플러스에 합류한 신정수 PD가 센터장을 맡아 콘텐츠 제작 및 기획 전반을 맡는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핵심인 콘텐츠제작센터는 ▲버라이어티제작1팀 ▲버라이어티제작2팀 ▲버라이어티스페셜팀 ▲뮤직콘텐츠제작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버라이어티제작 1팀과 2팀은 올해 LG유플러스에 합류한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 '화성인바이러스' 등 프로그램을 연출한 이근찬 PD와 SBS '런닝맨', '패밀리가 떴다' 등을 연출한 임형택 PD가 각각 팀장을 맡아 신개념 버라이어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할 예정이다.

리얼리티와 팩추얼 예능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버라이어티스페셜팀은 이달 초 LG유플러스에 합류한 양자영 PD가 맡는다. 양자영 PD는 2004년 KBS에 입사해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등 인기 프로그램을 연출한 콘텐츠 전문가다.

또한 뮤직콘텐츠제작팀은 Mnet '보이스코리아 202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중국판 등 뮤직 콘텐츠를 연출한 바 있는 박상준 PD가 팀장을 맡아 음악 기반 콘텐츠 및 아이돌 관련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한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한 만큼, 콘텐츠 전문 인재 영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echo@

'SK이노 지원' 그레이프랩
지속가능 기업 인정
임팩트스타트업 선정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친환경 소셜벤처 '그레이프랩'이 유럽 최대 기술 컨퍼런스 '웹서밋(Web Summit) 2022'에서 '임팩트 스타트업'에 선정되어 유망기업으로 떠올랐다.

9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그레이프랩은 지난 1~4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웹서밋에 참가해 전시 부스를 선보였으며, 웹서밋이 선정하는 임팩트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렸다. 웹서밋은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17개 목표에서 혁신을 보인 기업들을 선정하는데 그레이프랩이 포함됐다.

웹서밋은 지난 200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시작돼 2016년부터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기술 컨퍼런스다. 매년 전 세계 160개국, 7만 여명 이상이 참가한다.

그레이프랩은 특히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셜벤처다. 지난 9월 프랑스 인테리어 소품 뷔랑회 파리 메종앤오브제(Maison & Objet Paris)에 참가해 '왓츠뉴(What's New)'로 선정됐다.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디자인 매거진 디자인(Dezeen)의 디자인 어워드 롱리스트(Longlist)에도 이름을 올렸다.

SK이노베이션은 그레이프랩이 가진 친환경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에 주목하며, 지난 2020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레이프랩 김민양 대표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인정 받고 매출과 수익성 증대에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ysw@

KBI동국실업, 230억 투자 결실… 특허출원 매년 증가세

KBI그룹 車부품 부문 핵심 계열사
2019년부터 車 적용 아이템 개발 중
車 경량화 일조, 전기차시장서 인정

KBI동국실업이 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3년 간 연구·개발(R&D)에 230억원을 투자한 결실을 맺고 있다. 이 회사는 KBI그룹 자동차 부품 부문 핵심 계열사다.

9일 회사에 따르면 KBI동국실업은 2019년부터 일반 내연기관차의 전기차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 개발



GV60 크래시패드 및 슬라이딩 글로브박스.

과 12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올해 11건의 실적을 올렸다.

KBI동국실업은 연말까지 추가 출원도 진행 중이다.

현재 주력으로 개발하는 크래시패드 표피재 일체성형 IMG기술, 콘솔·글로브박스 관련 슬라이딩 기술 등 앞으로 아이오닉5 이후 전기차에 적용할 일부 기술들은 등록까지 마쳤다.

이미 개발된 슬라이딩 기술을 적용한 KBI동국실업의 센터콘솔은 지난해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5'에 '유니버설

아일랜드'란 명칭으로 국내 처음으로 장착됐다. GV60 글로브박스에도 KBI동국실업의 특허받은 슬라이딩 기술을 적용 중이다.

현재 KBI동국실업은 IMG관련 특허 출원을 국내 5건·해외 5건·슬라이딩 관련 특허 국내 11건·해외 8건 진행 중이다.

김진산 KBI동국실업 대표는 "2019년부터 3년간 경량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IMG·슬라이딩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인정 받고 매출과 수익성 증대에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